



최중화(부산장신대)

1. 들어가며: 문제제기

국내외에 출판된 대부분의 구약개론 책에서 다루는 구약성경의 정경화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²⁾

구약 전체의 최종적인 범위는 아마 기원후 1세기 말경(이른바 야브네-암니아 공의회에서)에 비로소 확정되었을 것이다. 이때는 유대공동체가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

1) 이 논문은 2014년 정부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o. 2014S1A5A8019741).

2) 예를 들면 베르너 H. 슈미트, 「구약성서입문 1」, 차준희 & 채홍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 서회, 2000), 26; T. Longman and R. Dillard,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 Mich.: Zondervan, 1994), 213.

괴 이후(기원후 70년) 새롭게 국력을 다질 때였다. (슈미트)

The rabbis at Jamnia (c. AD 100) did discuss the canonical standing of the book, but more in an effort to justify the status quo, which received the book, than to decide the question of canonicity. Other sources, both Christian and Jewish, have questioned the canonical status of the book. (Longman & Dillard)

여기에 조금 더 부연설명 하자면 구약 개론 시간에 구약성경의 정경화를 관련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접할 수 있다.

주후 70년 이차성전이 파괴된 이후 요하난 벤 자카이(Rabban Yohanan ben Zakkai)라고 하는 랍비가 로마황제 베스파시아누스(Vespasian)를 만나 협상을 하여 야브네(Yavneh)라고 하는 곳에서 학교(벧 미드라쉬, Beth Midrash)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라반 가말리엘 2세(Rabban Gamaliel II)가 리더로 있던 90년 전후에 야브네에서 공의회(council)가 열리고 구약성경이 정경화 되었다.

개론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시나리오는 거슬러 올라가면 유대역사가의 1세대라 할 수 있는 19세기 하인리히 그래츠(Heinrich Graetz)부터 시작되었다. 19세기 가설이 지금까지 여러 개론서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꽤나 영향력 있는 가설인 셈이다.³⁾ 본 연구는 그래츠의 야브네 정경화 가설의 타당성을 재조명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야브네 공의회의 관련 구절에 대한 단편적인 관찰과 지적들에 바탕을 두었다면,⁴⁾ 본 논문에서는 70년 이후 유대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리더십 재구성에 초점을 맞추어 구약성경의

3) H. Graetz, "Der alttestamentliche Kanon und sein Abschluss", in Graetz, *Kohélet, oder der Salomonische Prediger (Kohélet, or Ecclesiastes)* (Leipzig: Carl Winters Universitätsbuchhandlung, 1870), 147-173.

4) 야브네 공의회의 정경화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 J. Lewis에 의해 되어졌다. J. Lewis, "Jamnia Revisited", in McDonald & Sanders (eds.), *The Canon Debate* (Grand Rapid, Mich.: Hendrickson, 2002), 146-162.

야브네 정경화 가설에 대한 근거가 희박함 논증 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본 연구에서는 그레츠의 야브네 정경화 가설이 재구성하고 있는 ‘로마가 인정하는 한 사람을 통한 팔레스타인 통치’가 잘못된 학문적 전제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전제를 통해 재구성 된 야브네 구약정경화도 역사적 근거가 없음을 제안하려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초점은 AD 90년 야브네에서 공동체 수장으로 있었던 라반 가말리엘 2세(Rabban Gamaliel II)와 산헤드린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라반 가말리엘은 그레츠가 재구성 한 것처럼 로마에 인정받은 리더였을까?
- 2) 그레츠의 야브네 정경화 가설의 핵심에 있는 산헤드린(Sanhedrin)은 라반 가말리엘 2세 당시 정경화를 담당할만한 기관이었을까?
- 3) 만약 라반 가말리엘 2세와 산헤드린이 로마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브네의 소수 랍비들이 모여서 정경화 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위 질문에 답하기 위한 본 논문은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야브네 정경화의 핵심 사료인 미쉬나 야다임 3:5(이하 m. Yad, 3:5)에 대한 기존 학설들의 공헌과 한계를 짚어보고, 3장에서는 야브네 정경화 가설의 전제인 ‘한 사람을 통한 팔레스타인 통치’가 과연 1세기 후반에 가능했었는지를 라반 가말리엘 2세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려 한다. 4장에서는 당시 유대사회에서 절대적인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로마가 어떻게 지중해 동쪽지방(Greek East)을 다스렸는지를 재구성하며 로마가 라반 가말리엘 2세에 사회적, 정치적 리더십을 허락했을 가능성을 살펴 볼 것이다. 만약 라반 가말리엘 2세의 영향력이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 미치지 못하고 종교적인 영역으로 제한되었었다면 카르타고 공의회(Councils of Carthage)를 닮은 그레츠의 야브네 정경화 가설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소수 랍비들이 야브네에 모여서 정경화 작업을 하였을 가능성이 왜 희박한지에 대해

가볍게 짚어보며 마무리 하고자 한다.

2. 미쉬나 야다임 3:5(m. Yad. 3:5)과 기존 연구의 공헌과 한계

먼저 사료를 하나 읽고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m. Yad. 3:5은 그래츠부터 시작하여 야브네 정경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핵심 구절이었다. m. Yad. 3:5은 1세기 후반 야브네에서 랍비들이 전도서와 아가서의 정경성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는데, 전도서와 아가서를 둘러싼 정경 논란에 힐렐 학파와 사마이 학파가 의견을 달리한다는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구절이다. 본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

ר' יהודה או' שיר השירים מטמא {ה} את הנדים וקהלת מחלוקת
ר' יוסי או' קהלת אינה מטמאה את הנדים ושיר השירים מחלוקת ר'
שמעון אומו קהלת מקולי בית שמי ומחומרי בית הלל: (8) אמ' ר'
שמע' בן עזי מקובל אני מפי שבעים ושנים וקנים ביום שהושיבו את
ר' לעזר בן עזריה ששיר השירים וקהלת מטמות את הנדים: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할 부분은 위에서 3째줄 마지막부터 등장하는 랍비 시몬 벤-아자이의 증언이다.

“랍비 시몬 벤-아자이가 말하기를, 내가 랍비 엘르아자르 벤-아자리아가 (산헤드린 의 나싸로) 앉았을 때에 72명의 장로들로부터 (내려온 구전전승을) 받았는데, 아가서와 전도서가 손을 부정하게 한다(=정경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저자 번역)

5) 미쉬나 Kaufmann MS (Accordance에서 발췌)

시몬 벤-아자이는 본인이 72명의 장로들(산헤드린 공의회)로부터 받은 구전 전승이 있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은 72명의 장로가 전도서와 아가서가 손을 부정하게 하는 것(=정경에 포함된다)으로 이야기 했다는 것이다. 정경화와 관련하여 이 본문이 흥미로운 점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이다. 4번째 줄 마지막 부분 ‘베음’이하에 보면 이 일은 라반 가말리엘 2세가 실권하고 랍비 엘라자르 벤-아자리아 (2세대 타나, 80-120)가 그를 대신해서 산헤드린을 이끌고 있었을 때 일어났음을 알려준다.

m. Yad. 3:5를 바탕으로 그래츠는 1세기 후반 야브네의 산헤드린에서 전도서와 아가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전도서와 아가서 둘 다 정경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재구성 하였다. 이것이 지금까지 인용되고 있는 야브네 공의회에서의 정경화가설이다.

사실 19세기에 나온 이 가설이 힘을 얻은 것은 그 뒤의 학자들 대부분이 사료의 역사성을 확인하지 않고 그래츠와 그를 인용하는 학자의 글을 계속해서 재인용했기 때문이다.⁶⁾ 야브네 정경화 가설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왔는데,⁷⁾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루이스(J. Lewis)의 1964년 논문일 것이다.⁸⁾ 루이스의 논지를 중심으로 야브네 정경화 가설에 대한 비판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⁹⁾

-
- 6) 그래츠의 이론을 인용하고 따랐던 학자들은 S. Davidson, F. Buhl, H.E. Ryle, K. Budd, F.H. Woods, W.O.E. Oesterley, O. Eissfeldt, A. Bentzen, A. Sundberg 등이 있다. 자세한 것은 아래 Lewis의 논문을 보라. J. Lewis, *윗글* (2002), 147—151.
 - 7) G. Wildeboer는 1895년에 야브네 가설에 대해 지적하였다. G. Wildeboer, *The Origin of the Canon of the Old Testament* (London: Luzac & Co. Publishers, 1895), 63—64, 148—149.
 - 8) J. Lewis, “What Do We Mean by Jabneh?,” *Journal of Bible and Religion* 32.2 (1964), 125—132.
 - 9) 야브네 공의회와 성격관련 가장 중요한 논문은 아마도 J. Lewis가 쓴 1964년 논문일 것이다. Lewis의 논문은 이후 논문들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J.P. Lewis, *윗글* (1964); J.P. Lewis, *Anchor Bible Dictionary*, Vol. III (New York: Doubleday, 1992), 634—7; J. Lewis, *윗글* (2002), 146—162.
참조. G. Wildeboer, *윗글*, 63—64, 148—149; W.M. Christie, “The Jamnia Period in Jewish History”, *JTS* 26 (July 1925), 356; P. Schaefer, “Die sogenannte Synode von Jabne”, *Judaism* 31 (1975), 110—24; G. Stemmerger, “Die sogenannte ‘Synode von Jabne’” *Kairos*, N.F. 19 (1977), 16—21; J. Blenkinsopp, *Prophecy and Canon*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7); R.C. Newman, “The Council of Jamnia and the Old Testament Canon”, *WTJ* 38 (Spring 1979), 319—49; J. Lightstone,

1) 공의회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인 벤 딘, 메티브타, 에쉬바, 벤 하-미드 라쉬 같은 단어들은 어떨 때는 “아카데미”, “법정”, “학교”로 번역되었는데, 정경화와 연결되어서는 갑자기 공의회(council)가 되었다.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리던 기독교 공의회를 연상시키는 이 단어는 유대인 컨텍스트에는 맞지 않는다.

2) 실제로 구약성경의 정경화와 1세기 후반의 라반 가말리엘을 이어주는 이야기는 *m. Yad. 3:5* 하나뿐이다. 이 논의마저도 개인적인 의견만 나왔을 뿐 정경화와 같이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는다. 즉 개인적인 의견 교환이었을 뿐 실제로는 정경문제가 정리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3) 야브네의 모임은 학교이며, 학교에서 전도서와 아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정경리스트가 나온 것도 아니며, 정경에서 제외된 책 목록이 나온 것도 아니기에, 정경화 작업이라 하기 힘들다.

4) 실제로 *m. Yad. 3:5*는 90년대에 쓰여진 글이 아니라 백년이상 뒤에 쓰여진 글이며, 90년대 있었던 회의록도 아니다.

5) 라반 가말리엘 이전에도 정경화 논의가 있었고 이후에도 정경화 논의가 있었다. 에스더, 아가, 전도서 등의 정경에 대한 논의는 90년 이후에도 나타난다.¹⁰⁾ 외경인 벤시라(Ben Sira) 같은 경우에는 90년 이후에도 계속 랍비들에 의해 인용된다.

6) 주후 90년대에 아직 살아있던 요세푸스나 동시대의 기독교 문헌들이 1세기 후반

“The Formation of the Biblical Canon in Judaism of Late Antiquity: Prolegomenon to a General Reassessment,” *SR* 8 (1979), 141–142.

10) 실제로 *m. Yad. 3:5*에 나타나는 랍비 아키바는 2세기 초중반 사람이다. 특히 전도서에 대한 논란은 2세기 이후에도 계속 나타난다. 예를 들면, 2세기 후반의 랍비 시몬 벤-메나시아 (R. Simeon b. Menasia)는 전도서가 솔로몬의 지혜일 뿐이라 하였고 (t. *Yad* 2:14, b. *Meg. 7a*), 3세기에도 비슷한 논의가 나타난다. (Lev. Rab. 23; AdRN 1) 에스더 정경성에 대해서는 주후 3–4세기 논의도 있다. (b. *Meg. 7a*)

의 정경화 작업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는다.

7) 일반적으로 오경은 BC 400년경, 예언서는 BC 200년경, 성문서는 90년 야브네에서 정경화 되었다고 하는데, '성문서'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것은 AD 2세기 중엽 랍비였던 랍비 아키바(R. Akiva)때이다. (m. Yad. 3:5.)

8) 야브네의 정경논의는 정경화를 향한 과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위의 지적들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7번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1)번은 용어사용에 대한 정확한 지적으로 두 말할 것 없이 '공의회'(council)는 유대교 컨텍스트에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라 할 수 있다. 2)번은 모든 정경화 관련 구절을 90년대 야브네와 연결시키려는 시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구절로 m. Yad. 3:5를 제외한 어떤 구절도 야브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절이 없기에 정경화 관련 모든 구절을 야브네 컨텍스트에 집어 넣는 것은 방법론 적으로 잘못 되었음을 잘 지적해 주었다. 3)번은 1)번과 연결되어 야브네의 공의회로 알려진 모임이 실제로는 기독교 공의회보다는 학교에 가깝고, 그 안에서 인용된 구절들은 개인의 의견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해석은 그래츠가 있었던 19세기와는 달리 랍비문학의 역사적-문학적 특성에 대해 연구가 많이 진행된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감할만한 내용이다. 4)번이 특히 중요한데, 이는 미쉬나의 문학적 특징을 잘 지적해 주기 때문이다. 미쉬나는 3세기 초반에 예후다 하나시(Judah ha-Nasi)에 의해 집대성된 법전이고, 법전에 인용된 여러 랍비의 대립되는 의견들은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으로 특정 법해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공의회 공식 회의록과 거리가 멀다. 5)번과 6)번도 눈여겨 볼만하다. 만약 공식적인 '정경화'가 있었다면 요세푸스나 동시대 크리스천 문헌들에 영향을 주었고, 어떤 형태론도 피드백이 남았을 만한데 이들이 '정경화'에 대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시에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였듯이 후대 랍비문학(3-4세기)에서 전도서나 에스더의

정경성에 대해 논란이 등장한다.¹¹⁾ 이상 여러 가지 증거들과 논리들을 고려해 볼 때 그라츠가 처음 그렸던 야브네의 공의회 그림은 심각하게 도전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연구는 주로 몇 안 되는 정경화 관련 구절들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서 단편적인 지적을 통해 야브네 정경화가설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실제로 사회-정치적 리더를 세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와의 관계를 재구성하여 큰 그림 가운데 정경화를 보는 것에는 실패하였다. 실제로 정경화의 문제점을 잘 지적한 루이스의 경우도 라반 가말리엘 2세를 로마에 의해 인정된 리더로 보았고, 그가 로마의 간섭 가운데서 모든 법과 행정을 담당하였다는 것을 받아들였는데,¹²⁾ 아이러니 하게도 이 재구성은 야브네 정경화를 제안한 그라츠로부터 나온 것이었고, 야브네 정경화 재구성한 방법론과 똑같은 방법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루이스는 랍비문학을 역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론의 한계를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정경화에 대한 단편적인 지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1세기 중후반과 2세기 초반 유대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상황과 라반 가말리엘 2세의 리더십을 재구성해보며 로마시대 유대역사라는 큰 그림 안에서 야브네 정경화 가설이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11) 7번은 '케투빔'이 성문서를 뜻하는지 아니면 성경전체를 뜻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는 되기 어렵다.

12) J. Lewis, "Jamnia after Forty Years", *HUCA* 70/71 (1999-2000), 244.

3. 성전파괴 이후 (AD 70년) 랍비 리더십(rabbinic leadership)의 한계 이해하기 - 라반 가말리엘 2세는 유대공동체의 수장이었 나?

사실 그라츠가 구약성경의 야브네 정경화를 재구성 할 때 m. Yad. 3:5를 단
순 인용하며 논지를 전개한 것은 아니다. 먼저 그는 라반 요하난 벤 자카이
(Rabban Yohanan ben Zakkai)로 부터 시작하여 라반 가말리엘 2세로 이어
지는 예루살렘 성전멸망 이후(AD 70년) 유대사회를 통치했던 리더십을 재구
성 하였고, 그 속에서 m. Yad. 3:5를 바탕으로 야브네의 정경화를 이야기 하였
다.¹³⁾ 다시 말하면, 그라츠는 야브네 정경화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큰 그림을 그
린 것이다.

1) 로마로부터 권력을 이양 받은 라반 가말리엘 2세가 유대공동체 수장인 '나시'
(nasi)로 있었고,

2) 그는 야브네의 산헤드린(Sanhedrin)을 통해 유대사회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다.¹⁴⁾

이렇듯 주후 90년 당시 공적 리더십과 공적인 기구를 재구성한 큰 그림이 있
었기에 정경화라는 공적인 작업도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럴듯해 보이
는 이 재구성은 방법론 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주제에 대한 복잡한 논의를 이해하기 쉽도록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AD 70)이후 유대공동체를 이끈 것으로 알려진 요하난 벤-
자카이나 라반 가말리엘 2세는 극히 종교적으로 랍비들을 따르는 극소수의 유

13) H. Graetz, *History of the Jews*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891), 2:321-392.

14) 윗글, 2:342-344.

대인에게만 사회적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있었고, 정치적 영향력은 거의 없었을 가능성이 큰 듯하다. 이는 이들이 한 민족이나 나라를 이끌만한 지도자는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재구성이 많이 알려진 그레츠의 재구성과 크게 다른 것은 방법론의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랍비문학에 나오는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재구성하는 19세기 방법론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지난 100년 동안 랍비문학을 사료로 이용하는 방법이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70년 이후 랍비들이 유대사회를 이끌어 갔다고 주장하는 유대역사가들의 논지와 이 논지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한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¹⁵⁾

논지	문제점
라반(Rabban)이나 나시(Nasi) 같은 타이틀이 공동체 리더에 주어지는 칭호라는 것을 감안할 때, 라반 요하난 벤-자카이나 라반 가말리엘 2세는 이 칭호를 받았기에 유대사회의 리더였을 것이다.	랍비 문학을 사료로 다루는 역사적 방법론의 발전으로 라반(Rabban)이나 나시(Nasi)같은 단어는 나시가 실제로 유대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주후 3-4세기의 눈으로 1세기 리더십을 바라보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타카놏(Taqanot)을 재정하는 것은 '나시'들만 할 수 있는데, 라반 요하난 벤-자카이는 여러 타카놏을 재정하였다. 따라서 영향력 있는 리더였을 것이다. 이렇게 재정된 타카놏들은 때때로 벵 딘(Bet Din)과 연결되어 나올 때도 있다.	나시가 타카놏을 재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타카놏이 종교적인 부분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종교공동체 밖에 있는 사회적, 정치적 부분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이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나시는 절기와 달력을 정할 수 있었고, 윤년도 정할 수 있었다.	달력이나 윤달을 정하는 것도 역시 율법을 지키는 소수의 종교인에게만 영향을 줬을 것이다.

15) 논지 재구성을 위해서 인용된 책은 다음과 같다. H. Mantel, *Studies in the History of the Sanhedri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1); G. Alon, *The Jews in Their Land in the Talmudic Age (70-640 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107-118; D. Goodblatt, *The Monarchic Principle* (Tuebingen: Mohr, 1994); M. Goodman, *State and Society in Roman Galilee, A.D. 132-212* (London: Portland, Or., 1983). 참조, J. Choi, *Jewish Leadership in Roman Palestine from 70 CE to 135 CE* (Leiden: Brill, 2013), 201-208.

<p>(M. Smith의 가설) Smith는 요세푸스의 가장 먼저 쓰여진 저작인 B.J.와 상대적으로 뒤에 쓰여진 A.J. 사이에서 요세푸스가 바리새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생각했다. 즉, B.J. 보다는 그는 A.J.가 바리새인들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묘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랍비들이 유대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보았다.¹⁶⁾</p>	<p>M. Smith의 가설은 S. Mason에 의해 반박되었고 Mason은 요세푸스가 바리새인에 대해 묘사하는 것은 B.J.와 A.J.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였다.¹⁷⁾ 또한 바리새인이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랍비들의 사회적, 정치적인 힘으로 연결되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사실, 요세푸스는 바리새인을 이야기 하고 있고 랍비문학은 랍비들과 나시를 이야기 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이 랍비가 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p>
<p>라반 가말리엘 2세에 관한 3구절 (m. Edu. 7:7, t. Sabb. 7, 18, t. Sanh. 8.1.)은 그의 정치 사회적 리더십을 잘 말 해준다.</p>	<p>위쪽에 있는 라반 가말리엘 2세의 관한 3구절 (m. Edu. 7:7, t. Sabb. 7, 18, t. Sanh. 8.1.)중 그나마 가장 가능성 있는 구절이 m. Edu. 7:7이다. m. Edu. 7:7에는 라반 가말리엘 2세가 시리아의 총독에게 일종의 허가(권한 rashut)를 구하려 갔을 때, 라반 가말리엘 2세가 돌아와서 동의한다는 조건아래 운년을 처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정치적 리더십으로 해석하기도 했다.</p> <p>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허가인지, 어떤 여행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랍비들이 여행하는 것은 라반 가말리엘만 한 것은 아니었다. (참조, 랍비 아키바(R. Akiva))</p>

위의 표에 언급된 논지 중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요하난 벤-자카이와 라반 가말리엘 2세의 법적 권한은 종교적 영역에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는 미쉬나(The Mishnah)나 토세프타(The Tosefta)와 같은 법전이 종교적 영역에 해당되는 법들만 주로 다루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¹⁸⁾ 다시 말하면, 랍비들이

16) M. Smith, "Palestinian Judaism in the First Century," in *Israel: M. Davis (ed.), Its Role in Civilization* (New York: Harper, 1956), 67-81.

17) S. Mason, *Flavius Josephus on the Pharisees: Composition-Critical Study* (Leiden & Boston: Brill, 1991), 246-259.

18) M. Goodman, *State and Society in Roman Galilee, A.D. 132-212* (London: Portland, Or., 1983), 94-101; J. Neusner, *Judaism: Evidence of the Mishnah* (Eugene, Or: Wipf & Stock, 1981), 95-97, 101-110; S.J.D. Cohen, "The Place of the Rabbi in Jewish Society of the Second Century", in L. Levine (ed.) *The Galilee in Late Antiquity* (New York and Jerusalem: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157-173.

법적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교적 영역에 제한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유대법전뿐 아니라 고고학적인 증거들도 랍비들의 법해석이 종교적 영역을 넘어 일상생활에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게 해준다.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오랫동안 수집하여 분석한 굿이너프(E.R. Goodenough)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랍비들의 리더십 영향력 밖에 있었을 것이라 결론 내렸다. 이는 랍비문학에 등장하는 수많은 랍비의 이름이 실제로 법적인 문서(파피루스)에 등장하는 이름과 거의 겹치지 않으며, 고고학적 증거에 의해, 많은 유대인들이 랍비문학에서 거부하는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¹⁹⁾ 결론적으로, 랍비들은 그들을 따르는 극소수의 종교적 유대인들에게만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변수는 로마의 인정이다. 요한난 벤-자카이나 라반 가말리엘 2세가 정치적,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려면 당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로마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만약 로마가 요한난 벤-자카이와 라반 가말리엘 2세를 인정하고 당대의 지도자로 세웠다면 그들은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힘을 가졌을 것이고, 이는 정경화로 자연스럽게 이어 갈 수 있는 상황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로마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들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래 4장에서는 과연 로마가 AD 70년 이후 유대사회를 다스리는데 나시와 산헤드린을 필요로 하였을까를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4. 로마역사 속에서 야브네와 정경화

정경화를 위한 사회적, 정치적 힘을 로마가 줄 수 있었다면, 1세기 후반 로마

19) E.R. Goodenough, *Jewish Symbols in the Greco-Roman Period*, I-XIII (New York: Pantheon Books, 1953-68); S. Cohen, "Epigraphical Rabbis", in *The Significance of Yavneh and Other Essays in Jewish Hellenism* (Tuebingen: Mohr Siebeck, 2010), 227-243. Cohen도 Goodenough의 결론에 동의한다.

는 어떠한 선택을 하였을까? 예루살렘 성전파괴(주후 70년)이후 로마의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0년 이전부터 로마가 유대지방을 어떻게 다스려 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로마가 유대지방을 포함하여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지중해 동쪽지방을 다스리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었다.²⁰⁾ AD 70년 이전 로마는 지중해 동쪽 통치방식의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았다. 주로 왕들과 제사장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지역의 통치 문화를 고려하여, 믿을만한 사람(=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잘 다스리는)을 찾아 다스리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로마와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치공식은 유대지방도 예외가 아니었다. 폼페이(Pompey)에 의해 로마가 처음 유대지방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아리스토틀로스 2세(Aristobulus II)와 힐카누스 2세(Hyrchanus II)가 갈등 중이었으며, 이에 로마는 왕이자 대제사장 이었던 헤스모니안 가문 후예들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헤롯 대왕이 로마의 인정을 받은 이후에는 왕 타이틀을 가진 헤롯 가문과 대제사장들을 같이 사용하였고,²¹⁾ 또한 지중해 동쪽에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던 그리스식 도시(πολις, polis) 전통도 잘 활용하여, 도시의 자치를 허락하였다.²²⁾ 이들 도시에는 의회(βουλή, council)가 있었고 의회를 통해서 시의 중요 이슈들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유대 총독이었던 가비니우스(Gabinus)가 유대지방을 5개로 나누어 5개의 의회가 각각 다스리도록 하려 했던 것은 이상한 선택이 아니었다. 70년 이전 대표적인 유대지방의 '도시'(polis)가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의 산헤드린(Sanhedrin)이 대략 의회(βουλή)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²³⁾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산헤드린의 수장은 자연스럽게 대제사

20) 로마가 지중해 동쪽을 다스리던 방식을 보려면 J. Choi, *윗글* (2013)의 Chapter 4를 보시오..

21) 예를 들면, 신약에는 많은 헤롯 가문 후예들이 왕으로 등장하지만 실제로 헤롯 가문 사람들이 받은 타이틀은 다양하였다. 왕 타이틀을 받은 사람은 헤롯 대왕과 아그립바 1세 등이 있다.

22) 예를 들면, 데카폴리스(Decapolis).

23) 참조, V.A. Tcherikover, "Was Jerusalem a Polis", *IEJ* 14.1 (1964), 67-72; E. Rivkin, "Beth Din, Boule, Sanhedrin", *HUCA* 46 (1975), 192-199; Goodman, *Ruling Class of Judaea: the Origins of the Jewish*

장이었다.²⁴⁾ 결과적으로 70년 이전 유대지방에는 로마에 지중해 동쪽지방을 다스리던 모든 통치방식이 다 들어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파괴 이후에 이 옵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 대반란(The Great Revolt)이 끝난 70년 이후의 로마의 선택은 일반적이지 않았다. 로마의 눈으로 보면 가장 믿을만한 리더인 아그립바2세도 선택하지 않았고, 수백 년의 리더십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도 선택하지 않았다.

이 중에서 아그립바 2세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그립바 2세는 유대 대반란 때 로마를 적극 지원하였고,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로마와 돈독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²⁵⁾ 실제로 유대 대반란 시작부터 아그립바 2세는 로마 편에 서서 같이 싸웠다. 베스파시아누스가 티베리아스(Tiberias)를 점령하였을 때 군인들에게 도시를 파괴하거나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아그립바 2세를 배려해서이다.²⁶⁾ 심지어 아그립바 2세는 유대 대반란 중에 갈바(Galba)가 황제가 되었을 때 축하인사차 티투스스와 함께 로마에 가기도 하였다.²⁷⁾ 이 뿐 아니라 유대 대반란 이후 아그립바 2세의 사촌인 아리스토틀루스 3세(Aristobulus III)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왕국(Kingdom of Chalcis)을 물려받았고, 72/3년에 있었던 콤마게네(Commagene)와의 전쟁에 참여하였다. 아그립바 2세 역시 유대 대반란이 끝난 이후 바루스(Varus)의 영지를 베스파시아누스로부터 받았다.²⁸⁾ 또한 아그립바 2세의 여동생 베레니스(Berenice)는 60년대 중반부터 티투스(Titus)와 연인관계에 있었는데 성전파괴이후 70년대 중반에도 티투스를 로마에서 만나

Revolt Against Rome, A.D. 66-7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115–116.

24) 예를 들면, 마 26:57 (가아바) 등 신약 공관복음 곳곳에 대제사장들이 등장한다.

25) J. Choi, *윗글*, 157–158.

26) *B.J.* 3.461.

27) *B.J.* 4.489ff.

28) Dio 66.15.4.

황후 행세를 했다고 전해진다.²⁹⁾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아그립바 2세가 70년 이후에 집정관직(ornamenta consularia)을 수여했다는 것이다. 로마시민이 아닌 사람에게 집정관직을 수여했다는 것은 황제의 총애를 받았다는 뜻이다. 70년 이후의 로마와 헤롯 가문과의 좋은 관계를 생각한다면, 70년 이후 로마의 선택은 라반 요하난 벤-자카이가 아니라 두 말할 나위없이 아그립바 2세였을 것이다. 하지만 로마는 유대지방을 다스리며 아그립바 2세도 선택하지 않았고, 대제사장도 선택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요하난 벤-자카이와 라반 가말리엘 2세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의 지중해 동쪽지방 지배정책이 바뀌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되어야 한다.³⁰⁾ 실제로 로마는 1세기 중반부터 시작하여 2세기 초반까지 지중해 동쪽지방의 모든 분봉왕(client kingship)을 없애고 직접 다스리기 시작하였다.³¹⁾

- 1) (AD 40년대) Kingdom of Cappadocia 직접통치
- 2) (AD 42) Kingdom of Mauretania 직접통치
- 3) (AD 60년대) Kingdom of Pontus 직접통치
- 4) (AD 71 또는 72년) Lesser Armenia 직접통치
- 5) (AD 70년경) Kingdom of Galatia 직접통치
- 6) (AD 70년경) Kingdom of Cappadocia 직접통치
- 7) (AD 70년 이후부터 1세기 후반) Kingdom of Emesa
- 8) (AD 72) 콤파게네 (Commagene)가 반역으로 고소되어 로마의 직접통치에 들어 가게 됨. 이후 반역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으나 회복되지 않음.
- 9) (AD 93) Kingdom of Chalcis 직접통치
- 10) (AD 93) 아그립바 2세의 영토였던 Batanaea 직접통치

29) Quintilian, *Inst. Orat.* 4.1. N. Kokkinos, *Herodian Dynasty* (London: Spink, 1998), 329–330.

30) J. Choi, *윗글*, 161ff.

31) J. Choi, *윗글*, 134–136.

11) (AD 96) 아그립바 2세의 영토였던 Auranitis 직접통치

12) (AD 106) Nabataea 왕국 직접통치

주목할 만한 것은 1세기 중반부터 시작하여 2세기 초반까지 로마제국의 직접통치로 합병되었던 왕국들은 다시 왕국으로 돌리지 않고 로마가 계속하여 직접통치했다는 것이다. AD 71/2년 Lesser Armenia의 아리스토틀루스 3세가 Lesser Armenia를 빼앗기고도 로마에서 정치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을 비추어 보아, 사람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AD 93년과 96년에 아그립바 2세 영토 두 개를 직접통치로 전환한 것도 아그립바 2세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 보다는 지역을 다스리는 정책의 전환점에서 일어난 일이라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을 생각해볼 때, 유대 대반란이 정리되었던 70년은 이러한 정책 변화의 중간지점이었고, 구약성경이 야브네에서 정경화되었다고 이야기되었던 90년대는 로마의 총애를 받던 아그립바 2세의 영토마저 특별한 이유 없이 직접적으로 합병 당하는 시대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로마가 아그립바 2세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아그립바 2세가 전쟁에 책임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중해 동쪽을 다스리는 로마의 정책이 지역 사람을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다스리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70년 유대 대반란은 이후 로마가 70년 이전에 군단이 없던 유대지방에 10군단(Legio X Fretensis)을 주둔시켜 다스리게 했던 것이 쉽게 이해되고, 이후 10군단을 철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2세기 초반인 하드리아누스(Hadrian) 때는 갈릴리 근처에 6군단(Legio VI Ferrata)을 추가로 배치시켰던 것도 자연스럽다. 아마도 로마는 70년 이후 유대지방을 군대를 통해 직접통치 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큰 듯하다. 실제로 유대지방에서 발견되는 야딘 파피루스(P. Yadin)같은 상당한 분량의 행정관련 사본들은 실제적인 행정과 사법을 다루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행정과 사법을 감당했던 사람들 이름 중에 랍비들은 한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들 대부분이 로마의 공무원이었

다는 것이다.³²⁾

결론적으로 로마는 70년 이후 유대지방을 포함한 지중해 동쪽지방을 직접 다스리려 했던 것 같고, 그 결과 1순위였던 아그립마 2세도 2순위였던 대제사장도 정치적, 사회적 리더십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직접통치로 치달는 상황에서 라반 요하난 벤-자카이나 라반 가말리엘 2세를 ‘나시’로 인정하고 정치적, 사회적 힘을 실어주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긴다. 70년 이후 유대공동체가 라반 요하난 벤-자카이부터 시작하여 라반 가말리엘 2세로 이어지는 리더십에 의해 다스려진 듯한 인상을 주는 랍비문학의 기록들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0세기 들어서 랍비문학을 역사적 자료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거듭됨에 따라 많은 유대역사가들이 발견한 것이 있다. 랍비문학은 책이 써지던 후대의 상황을 그 이전 상황에 덧입혀 종종 이야기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요하난 벤-자카이 이야기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후대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다. 4가지 다른 사료에 나타나는 요하난 벤-자카이 이야기는 (AdRNA, AdRNB, b. Git. 56a & 56b, Lam. Rab. 1:5) 역사적으로 증명되기 어려운 이야기다. 사료들에 나타나는 요하난 벤-자카이는 함락직전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베스파시아누스를 만나 담판을 지어 야브네를 얻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 재구성은 불가능하다. 황제가 되기 위해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로 떠난 것은 AD 68년이고, 예루살렘 포위는 그 뒤인 69년 겨울부터 티투스(Titus)에 의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설령 요하난 벤-자카이가 예루살렘 포위를 뚫고 나와 티투스 만났다고 가정하더라도 문제는 심각해진다. 티투스가 황제가 될 것을 요하난 벤-자카이가 예언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기 까지 10년이 걸리게 된다. 티투스는 79년에 이르러서야 황제가 되기

32) H. Cotton & A. Yardeni, *DJD* XXVII (Oxford: Clarendon, 1997), 153f; H. Cotton, "The Rabbis and the Documents", in M. Goodman (ed.) *The Jews in a Graeco-Roman World* (Oxford: Clarendon Press, 1998), 167; idem, "Jewish Jurisdiction under Roman Rule: Prolegomena", in M. Labahn and J. Zargenbergs (eds.), *Zwischen den Reichen: Neues Testament und Römische Herrschaft* (TANZ 36, 2002), 5.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랍비문학이 그리는 야브네는 이상적인 랍비 리더십으로 1세기 보다 이후의 상황을 덮어씌운 듯하다. 이상적인 야브네에는 나시 집안사람은 아니지만 베스파시아누스를 만나 담판을 지은 요하난 벤-자카이, 나시집안의 라반 가말리엘 2세도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야브네에 산헤드린(Sanhedrin), 벡 딘(Beth Din), 벡 미드라쉬(Beth Midrash)도 있다. 마치 랍비들이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인 것처럼 그려진다. 아마도 이 그림은 로마가 인정했던 리더인 3세기 예후다 하나시(Judah ha-Nasi)때 와서야 가능한 그림이 아닐까 한다.

5. 나가며

2장, 3장, 4장의 재구성을 크게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m. Yad. 3:5은 1세기 후반 야브네에서 정경화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 해준다. 2) 하지만 이 정경화 논의는 그레츠의 가설에서 말하는 정경화와는 거리가 먼 듯하다. 유대사회를 이끌어 가는 사회적, 정치적 리더를 통한 정경화를 이야기 하는 그레츠의 가설은 3장과 4장의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드러내 주는 여러 증거들을 볼 때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긴다. 사회적, 정치적인 힘이 없더라도 야브네에서 일부 랍비들이 모여 정경화를 했을 가능성은 없었던 것일까?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떠한 정경화를 기대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기대하는 야브네 정경화가 카르타고 공의회 스타일의 정경화라면 그러한 정경화가 야브네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가장 가까운 증거로 2장에서 정경화의 가장 중요한 증거로 살펴보았던 m. Yad. 3:5은 정경화에 대한 여러 가지 상충되는 의견을 같이 이야기 해주는 전형적인 미쉬나 본문이다. 아가와 전도서가 정경에 들어간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임을 다타 내고는 있지만 한 가지 결론으로 몰아가려는 의지가 없는 전형적인 미쉬나 본

문이다. 예를 들면, 본문 초반에 나오는 랍비 예후다(R. Yehudah)와 랍비 요세(R. Yose)는 둘 다 랍비 아키바의 제자들로 2세기 초중반에 살았던 3세대 타나인테 이들의 의견이 같린다. 랍비 예후다는 “아기는 정경으로 넣을 수 있지만 전도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고, 랍비 요세는 “전도서는 정경으로 인정되어도 아기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상충되는 의견을 피력한다. 한 가지 공통점은 주후 2세기 초반에도 정경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카르타고 공의회 스타일의 정경화가 90년대에 끝났다면 미쉬나 야다 임 같은 법적인 콘텍스트에서 이런 식의 논쟁이 가능했을까? 재구성해보면, 1세기 후반 야브네의 아카데미에서 몇몇 랍비들이 같이 나누었던 정경화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논의였던 듯하나, 마침표를 찍는 논의는 아니었을 것이다. 1세기 초중반까지도 계속적인 논의가 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재구성을 바탕으로 구약성경이 정경화되었다고 믿어지는 1세기 유대사회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70년 이후 1세기 후반은 로마가 행정적, 사법적으로 유대사회를 군대를 통해 직접 다스리고 있었을 것이다. 유대지방에는 더 이상 대제사장과 같은 로마에게 인정받은 총리급 리더는 존재하지 않았던 듯 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직접통치 아래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이 시기 (1세기 후반) 몇몇 랍비들은 야브네에 모여 벤 미드라쉬(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다. 랍비들의 삶의 방식과 종교적 결정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고고학적 증거를 보는데 아마 극소수였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경에 대한 논의가 벤 미드라쉬에서 있었다. 이 논의는 중요한 것이었겠지만 논의에 마침표를 찍은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벤 미드라쉬의 논의는 기독교 공의회에 비할만한 공의회는 당연히 아니었고, 정경이 여기서 확정된 것도 아니었다. 2세기에도 이들의 제자들은 정경화 논의를 계속 진행했던 듯하다.

그렇다면 구약성경은 언제 정경화가 되었을까? 이 질문은 지면 관계상 본 논문에서 다루기는 힘들다.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 중이다.) 한 가지 확실

한 것은 이제 그레츠의 가설을 뒤로 하고, 다시 한 번 사료를 꼼꼼하게 다시 살펴 봐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사실 그레츠는 19세기 최고의 유대역사가였고 이 후 오랫동안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랍비문학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사료로 다루는 방법론이 발전된 21세기에 와서 그레츠의 재구성을 (사안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유대역사가는 거의 없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20세기 중반부터 문제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100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 많은 개론서에 사실 인양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90년대 야브네 정경화 작업은 19세기에 쓰여진 역사소설(historical novel)에 가까운 듯하다.

6. 참고문헌

Alon, G., *The Jews in Their Land in the Talmudic Age*, (Jerusalem: Magnes Press, 1980).

Blenkinsopp, J., *Prophecy and Canon*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7).

Choi, J., *Jewish Leadership in Roman Palestine from 70 C.E. to 135 C.E.* (Leiden: Brill, 2013).

Christie, W.M., "The Jamnia Period in Jewish History," *JTS* os-XXVI (104) (1925), 347-364.

Cohen, S., "Epigraphical Rabbis", in *The Significance of Yavneh and Other Essays in Jewish Hellenism* (Mohr Siebeck, 2010), 227-243.

Cotton, H. & Yardeni, H., *DJD XXVII* (Oxford: Clarendon, 1997).

Cotton, H., "The Rabbis and the Documents", in M. Goodman (ed.) *The Jews in a Graeco-Roman World* (Oxford: Clarendon Press, 1998).

Cotton, H., "Jewish Jurisdiction under Roman Rule: Prolegomena", in M. Labahn and J. Zargenbergs (eds.), *Zwischen den Reichen: Neues*

- Testament und Römische Herrschaft* (TANZ 36, 2002), 13-28.
- Goodblatt, D., *The Monarchic Principle* (Tuebingen: Mohr, 1994).
- Goodman, M., *State and Society in Roman Galilee, A.D. 132-212* (London: Portland, Or., 1983).
- Goodman, M., *Ruling Class of Judaea: the Origins of the Jewish Revolt Against Rome, A.D. 66-7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Goodenough, E. R., *Jewish Symbols in the Greco-Roman Period*, I-XIII (New York: Pantheon Books, 1953-68).
- Graetz, H., "Der alttestamentliche Kanon und sein Abschluss (The Old Testament Canon and its finalisation)," *Kohelet, oder der Salomonische Prediger* (Kohelet, or Ecclesiastes) (Leipzig: Carl Winters Universitätsbuchhandlung, 1870), 147-173.
- Graetz, H., *History of the Jews*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891), 2: 321-392.
- Lewis, J.P., "What Do We Mean by Jabneh?," *Journal of Bible and Religion* 32.2 (1964), 125-132.
- Lewis, J., *Anchor Bible Dictionary*, Vol. III (New York: Doubleday, 1992).
- Lewis, J., "Jamnia after Forty Years," *HUCA* 70/71 (1999-2000), 233-259.
- Lewis, J., "Jamnia Revisited", in McDonald & Sanders(eds.), *The Canon Debate* (Grand Rapid, Mich: Hendrickson, 2002), 146-162.
- Lightstone, J., *The Formation of the Biblical Canon in Judaism of Late Antiquity: Prolegomenon to a General Reassessment*, *SR* 8 (1979), 141-142.
- Longman, T. and Dillard, R.,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 Mich.: Zondervan, 1994).
- Mason, S., *Flavius Josephus on the Pharisees: Composition-Critical Study* (Leiden & Boston: Brill, 1991).

- McDonald, L. & Sanders, J. (eds.), *The Canon Debate* (Grand Rapid, Mich.: Hendrickson, 2002).
- Mantel, H., *Studies in the History of the Sanhedri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1).
- Neusner, J., *Development of a Legend: Studies on the Traditions Concerning Yohanan ben Zakkai* (Leiden: Brill, 1970).
- Neusner, J., *Judaism: Evidence of the Mishnah* (Eugene, Or: Wipf & Stock, 1981).
- Newman, R. C., "The Council of Jamnia and the Old Testament Canon,"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38.4 (1976), 319-349.
- Rivkin, E., "Beth Din, Boule, Sanhedrin," *HUCA* 46 (1975), 192-199.
- Schaefer, P., "Die sogenannte Synode von Jabne," *Judaism* 31 (1975), 110-24.
- Smith, M., "Palestinian Judaism in the First Century", in *Israel: Its Role in Civilization*, M. Davis(ed.) (New York: Harper, 1956), 67-81.
- Stemberger, G., "Die sogenannte 'Synode von Jabne'" *Kairos*, N.F. 19 (1977), 16-21.
- Tcherikover, V.A., "Was Jerusalem a Polis", *IEJ* 14.1 (1964), 67-72.
- Wildeboer, G., *The Origin of the Canon of the Old Testament* (London: Luzac & Co. Publishers, 1895).
- 베르너 H. 슈미트, 「구약성서입문 1」, 차준희 & 채홍식 역 (대한기독교 서회, 2000).

검색어

구약성경

정경화

야브네

얍니아

Revisiting the Canonization of the Old Testament at Yavneh

Junghwa Choi, Ph.D.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When and where was the Old Testament canonized? Many would answer, “Around 90’s at Yavneh.” The hypothesis of the canonization of the Old Testament at Yavneh appeared for the first time in the academia in 19th century by the first-generation Jewish historian, Heinrich Graetz. Despite the challenges by several scholars, the hypothesis is still influential and appears in many introductory books to the Old Testament. This paper will examine the old issue with a new angle. In light of the reconstruction of the Roman administration of Judaea at the end of the first century AD, we want to examine how likely is it for R. Gamaliel II to have conducted the canonization of the Old Testament along with his council at Yavneh. The outcome of the research is that the Romans would have never chosen Rabban Yohanan b. Zakkai or R. Gamaliel II as intermediaries because they were in the middle of re-arranging the Greek East without intermediaries, that is, client kings. If

www.kci.go.kr

Agrippa II who found favour with the Romans was not Roman's choice, it is highly unlikely that R. Gamaliel II was Roman's choice. R. Gamaliel and rabbinic authority might have not exercised civil jurisdiction and his Sanhedrin does not seem to have had authority to impose their decision on the canonization of the Old Testament.

Keywords

the Old Testament

Canonization

Yavneh

Jamnia

- 투고일: 2018년 2월 19일
- 심사일: 2018년 4월 11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4월 30일

www.kci.go.kr